



제10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여수시가 명실상부한 국제 해양관광 중심 도시로 우뚝서고 있다.

특히 광복절 연휴기간 국제 청소년축제와 국제 범선축제,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이 여수 박람회장에서 잇따라 열리면서 연일 수만명의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 때문에 연휴 오전부터 여수 엑스포역~돌산공원으로 이어지는 박람회장 주변 원도심 도로에는 외지 관광객 차량들이 줄을 이었다.

또 삼삼오오 무리를 지은 젊은 배낭족들은 오토도와 박람회장, 해양공원 등 여수 곳곳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는 여수시가 지난 2012년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로 잘 다져진 관광·숙박 인프라를 바탕으로 빅오(BIG-O)쇼·아쿠아플라넷, 해상 케이블카, 레일바이크, 시티투어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활용해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3월 마련한 관광 종합대책과 더불어 이승욱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종합상황실 운영, 주말과 연휴기간 직원들로 구성된 10개의 대책반 집중 투입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구축에 만전을 기한 것도 주요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오는 2024년까지 관광객 1800만 달성을 위한 '여수 관광 종합개발계획'을 관광개발연구원 용역을 통해 마련했다.

◇주요관광지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박람회장 인근과 주요 관광지도 관광객들로 붐볐다. 시내 주요 시민 주차장과 향일암 주차장은 오전 10시만 이미 차량들로 가득 찼고, 여수 시티투어 버스 4개 코스와 2층 투어버스는 대부분 만차 상태로 운행했다.

중앙동 음식점과 거리와 봉산동 계장골목은 오후 늦게까지 긴 줄로 늘어난 손님들로 혼잡했고, 1400여개 호텔객실과 주변 펜션이 가득 차는 등 숙박시설도 붐볐다.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14일 1만5000명, 15일 1만9000명 등 광복절 황금연휴 사용동안 2만3600명이 이용했다. 여수시 집계결과 연휴

여수 뜨거운 여름 관광객 인산인해

국제해양관광 중심도시로 우뚝



잇단 국제축제 빅오쇼·해상케이블카 등 연일 수만명 몰려 박람회 사후활용 적극 모색...2024년 1800만명 유치키로



2015 여수국제청소년축제

사흘 동안 박람회장과 여수 주요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은 총 33만4000여명을 기록했다.

여수를 방문한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더욱 높았다.

특히 여수 박람회장을 찾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은 박람회장내 각종 체험장에서 다양한 체험을 맘껏 즐겼다.

이를 반영하듯 국제 청소년축제 연계 행사인 생활자수와 천연화장품 만들기 등 40여개 체험 부스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국제 범선축제에 참가한 초대형 러시아 범선에도 같은 기간 2만4500여명이 승선 체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중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은 "여수가 보유한 훌륭한 관광자원과 적극적인 시 행정 이 더해져 대형 행사인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등을 잘 마쳤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관

광서비스를 마련해 국제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도약에 작은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람회 개최 3주년 기념행사 함께 열려=광복절 연휴기간 박람회장과 주요 관광지가 관광객들로 성황을 이룬 가운데 세계박람회 개최 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이어졌다.

여수시는 연휴기간인 지난 13일 박람회장 디지털 갤러리에서 시민, 자원봉사자, 각 기관 단체장, 시·도의원, 유공자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개최 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박람회 당시 헌신했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마련한 '자원봉사자 어울림 한마당'과 함께 50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합창단이 '여수 밤바다'를 함께 부르며 성공 개최후 지난 3년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해상케이블카



여수세계박람회 3주년 기념행사

이어 여수시는 30만 시민의 마음을 담아 강동석 전 조직위원장과 권도엽 전 국토부장관, 김성곤·주승용 국회의원, 박수관 외의시체육회장 등 9명의 헌신을 기리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하지만 3주년 기념행사와 관광객들로 붐볐던 박람회장의 모습과는 달리 지지부진한 사후활용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2조700억원을 투입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여수박람회장이 올해로 3주년을 맞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후활용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투자금 3846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박람회장 주요시설 매각만을 고집하면서 발생한 결과라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실제 현재까지 사후활용 윤곽조차 마련하지 못한 정부가 지난 3년동안 3차례나 박람회장 건물과 부지 등에 대해 민자 투자자를 찾기 위한 매각공고를 했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여수 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추진위도 최근 폐막 3주년 성명을 내고 "정부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가 함께 한 21세기 최대 해양축제인 여수 세계박람회 정신을 계승해 사후활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지역 정치인들 역시 완고한 정부 핑계만 대지 말고 사후활용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한국 개발연구원 KDI 용역을 통해 최근 매각 일변에서 장기 임대방식으로 새로운 사후활용 방안을 결정한 만큼 제대로 된 사후활용이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친구야! 섬으로 가자

여수시, 여자도 등 7개 섬 체험 프로그램 실시

여수시가 남도 섬 명소화 사업을 추진한다.

여수시는 섬 지역의 독특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섬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섬지역 여행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해 지난 17일 여자도를 시작으로 9월 13일까지 7차례로 나눠 안도·연도 등 7개 섬에서 '친구야! 섬으로 가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여자도 섬 체험 여행

전남대 산학협력단 이순신 해양문화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섬체험 여행 프로그램은 인터넷 홈페이지(ymcri.jnu.ac.kr)를 통해 섬 여행을 원하는 20대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차수별로 20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전남도와 여수시에서 총 경비의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참가자는 총 여행경비의 절반 정도만 부담하면 여행에 동참할 수 있다. 참가자들이 적정비용을 지불하는 여행인 만큼 수준높은 여행상품으로 운영되며, 섬 주민들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섬을 제대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여행 일정으로는 ▲1차 안도(명품섬 동고지마를 탐방·바다낚시, 8월 27~28일) ▲2차 연도(선상유적체험·소리도 등대 방문·조개더미 유적 탐방, 9월 5~6일) ▲3차 사도·남도(공룡발자국 화석지 탐사·첫 섬 막걸리주조장 견학 및 체험, 9월 12~13일) ▲4차 초도(자연경관 산책로 탐방·일몰경관, 10월 9~10일) ▲5차 금도 비렁길, 생태탐방(10월 30~31일) ▲6차 백야·하화도(에너지 자립섬) 둘레길 탐방·순두부 시식, 11월 7~8일) 등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365개의 섬을 보유한 여수시의 섬 여행상품이 널리 알려지고, 앞으로 여수의 대표적인 여행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전남대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061-659-6584)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레일바이크 매출액 3% 시에 기부

여수해양관광개발, 사회공헌 약정 체결

여수에서 레일바이크를 운영하고 있는 여수 해양관광개발(대표 황윤아)은 지난 20일 여수시와 사회공헌 약정을 체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여수시청에서 주철현 여수시장과 공익기부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레일바이크 입장권 매출액의 3%를 시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이 기부금을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맞게 관광진흥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황윤아 대표는 "여수에서 관광시설업을 하면서 지역의 발전 및 지역민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오래전부터 기부를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이 공익 기부금이 여수관광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소중히 쓰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 해양관광개발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여수시 만흥동에 위치한 총 길이 3.5km의 해안철길 위에 레일바이크 50대를 운영하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여수엑스포역 '내일로 티켓' 방문객 두달새 12만여명

여수 엑스포역이 청춘 여행의 대명사인 '내일로 여행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24일 여수 엑스포역에 따르면 여름방학이 시작된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코레일이 젊은 여행객을 위해 마련한 내일로 티켓을 이용해 여수 엑스포역을 방문한 여행객은 12만 4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

간 5만명보다 무려 7만명 이상이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여수를 찾는 젊은 여행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까닭은 ▲광복 70주년 기념 코레일 내일로티켓 50% 할인 ▲울산~여수구간 KTX 등 열차편편 운행 ▲여수시의 다양한 숙박비 지원 정책과 레일바이크 등 지역 관광

상품 할인 행사 등 내일로 여행객을 위한 맞춤형 관광상품 덕분이다.

이 같은 혜택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여수 시티투어'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주요 관광지를 모두 둘러 볼 수 있는 알짜 관광코스로 큰 몫을 하고 있다.

여기에 여수 엑스포역 실내홀에서 매년 개최되는 '내일로 페스티벌'과 26일 열릴 내일로 티켓 판매 2015년 상반기 전국 1위 달성 축

사공연인 '내일로스타 오디션' 등 다양한 행사들이 전국 청춘 여행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박철진 여수 엑스포역장은 "이미 여수는 젊은 여행객인 '내일러' 사이에서 여행의 성지로까지 불린다"며 "곧 13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지역관광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지역	구분	전화번호
지방지사 (061)	광산	062)944-0444
	군산시	063)467-2500
	정읍시	063)531-5544
	남원시	063)626-1601
시내지국	남부	652-0175
	동명	264-2012
	동부	222-9054
	문성	225-6001
	백운	267-4748
	봉선	673-4698
	북광주	675-5530
	상무	525-3761
	서광주	372-2352
	송하	369-0583
	신안	675-6805
	양산	512-1732
	양치	571-7658
	용봉	266-7601
	우산	522-7752
	우천	512-8116
	월곡	371-9818
	중암	961-2339
	중흥	222-1896
진월	224-6604	
첨단	673-1800	
창평	973-2900	
충서	224-8212	
충평	376-6511	
하남	682-8112	
화정	959-1500	
	375-9862	